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독서(비문학)

소재별 기출 모음

- 음악(평가원+교육청+사관+리트) -

오르비 클래스 설승환

<1> 2016년 11월 고2 학력평가 국어영역 16-19번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을 듣는다고 가정해 보자. 제2음이 울릴 때 직전에 제1음이 울렸던 순간은 과거일까? 현재일까? 이에 대해 과학적 시간관에서는 현재는 과거나 미래와 단절된 점(點)과 같은 순간이므로 과거라고 답할 것이다. 반면 체험적 시간관에서는 ‘현재의 지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라고 답한다.

체험적 시간관을 확립한 후설(Husserl)에 따르면 현재가 ‘과거-원인상-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됨으로써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이 함께 생생하게 지각되는데, 이를 ‘현재화’ 작용이라고 한다. 원인상은 음을 듣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하는 순간에 의식된 근원적 인상을 말한다. 그런데 제2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들은 제1음은 변양된 형태로 여전히 의식 속에 남아 있다. 이처럼 원인상을 의식 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과거이다. 또한 제2음을 들을 때 아직 듣지 않은 음을 예측하듯이 원인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즉각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예지이다. 예지는 충족될 수도, 어긋날 수도 있다. 이처럼 과거가 현재로 다시 당겨지고 미래가 현재로 미리 당겨지면서 현재의 지평이 형성된다. 따라서 제2음을 들을 때 제1음이 들렸던 순간도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평 형성에는 ‘현전화’ 작용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화가 자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현전화는 자아의 능동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현전화에는 우선 회상이 있다. 과거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에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사라진 것을 현재에 불러오는 것이 회상이다. 또한 미래의 일을 현재에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를 기대라고 한다.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며, 현재화와 융합되어 현재의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화가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있는 것과 달리, 현전화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어 생생함이 사라진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가 유기체처럼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개인의 관심이나 주의력에 따라 과거와 예지, 회상과 기대의 정도가 달라져 현재의 지평도 변한다. 예컨대 프로듀서가 휴양지에서 휴식을 위해 음악을 들을 때보다 음반 출시를 위해 음악을 들을 때 현재의 지평은 더 넓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화는 현재의 지평에 대한 통일적 인상을 변화시킨다. 제1, 2음을 들으며 제3음의 높낮이를 예측할 때, 그 세 음들에 대한 나름의 통일적 인상을 갖는다. 그런데 예측하지 않은 제3음이 들려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제1, 2, 3음에 대한 이전의 인상도 달라져, 그 세 음들에 대한 통일적 인상도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된다.

체험적 시간관을 통해 인간은 항상 경험을 통일성 있는 구조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된 사물을 보거나 ‘뻑’하는 소리를 들을 때조차 그 순간만을 지각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지각하거나 회상과 기대를 함으로써 그 대상과 관련한 스토리를 만들려 하는 인간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후설은 현재가 지평을 갖는다고 보았다.
- ② 현재화는 현전화를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다.
- ③ 과학적 시간관에서 현재는 점과 같은 순간이다.
- ④ 현전화는 현재의 지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 ⑤ 인간은 고정된 대상을 보면서도 스토리를 만들려 한다.

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인상은 회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의식이다.
- ② 현재의 지평은 개인의 주의력과 무관하게 신축성을 가진다.
- ③ 과거는 잊힌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 현재의 지평을 새롭게 한다.
- ④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이는 통일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없다.
- ⑤ 기대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예지와 다르다.

3.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가)~(라)를 듣는 청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나모의 ‘함축-실현’ 이론에 따르면 청자들은 음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음 음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한다. 한 예로 세 음을 연속해서 들을 때, 앞의 음정이 ‘미’와 ‘솔’, ‘파’와 ‘라’ 사이처럼 완전 4도 이하의 좁은 음정일 경우, 앞 음정이 상승이면 뒤 음정도 상승, 앞 음정이 하행이면 뒤 음정도 하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파’와 높은 ‘레’ 사이처럼 앞의 음정이 완전 5도 이상의 넓은 음정이라면 앞 음정과 반대의 방향으로 뒤 음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 음정 :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의 간격

(가) 	(나)
(다) 	(라)

- ① (가)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도 제1음과 제3음을 함께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가)의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 ③ (나)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 일어난 예지가 제3음을 들을 때 충족되지 못해 제1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 ④ (다)의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 ⑤ (라)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 미리 당겨진 음에 대한 인상이 제3음을 들을 때 느낀 인상과 다르다고 느낄 것이다.

4. 윗글의 ‘후설’이 <보기>의 ‘브렌타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브렌타노는 직전에 지각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변양된 상태로 떠오르는데, 이는 지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직전에 본 장면을 여전히 보고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상상의 생생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가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 ① 직전에 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지각입니다.
- ② 직전에 본 장면을 떠올릴 때는 변양이 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 ③ 지각한 것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 ④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은 능동적인 노력 없이도 가능합니다.
- ⑤ 시간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 연상은 생생할 수 없습니다.

<2>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39-43번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악사학자들은 서양 음악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음악에서 찾는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이 향유하던 음악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 이유는 음악적 실체를 밝힐 문헌 자료가 충분치 않고, 현존하는 자료의 대부분이 음악 그 자체보다는 이론이 어떠했는지의 정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음악은 기에 영역이라기보다 학문적 영역이었다는 점인데, 이는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에 ㉠ 내재한 수학적인 사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 음악에서 수학적인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낸 학자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이다. ㉡ “만물은 수(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곧 음악이었다. 피타고라스는 ㉢ 하프를 직접 연주하면서 소리를 분석하여, ㉣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하프 현의 길이가 ㉤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도와 한 옥타브 위의 도는 2:1, 도와 솔의 5도는 3:2, 솔과 그 위 도의 4도는 4:3의 비를 이룬다는 것 등이 그것인데, ㉥ 5도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이 곧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 하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기도 하다.

(다) 음악을 수학의 눈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음악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의 음악관을 비판하며 실제적 측면에서 음악을 바라본다. 그는 ‘감각적 지각’이 수적 비율보다 음악을 판단하는 데에 더 근본적이라 주장하며, 이를 미적 체험의 바탕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5도를 아름답다고 들었을 때, 그것이 왜 아름답게 들리는지를 수리적 추리를 통해 이해하려고 했던 피타고라스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로 지각된 소리를 근거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판단한다.

(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이고 현상론적인 입장에서 오늘날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되는 리듬과 멜로디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당시 통용되던 음악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정리하였다.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 성향은 음악주의자라고 불리는 후대의 많은 이론가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음악을 수학적으로 풀이하려는 피타고라스주의자들에게는 비판받았다.

(마)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의 두 전통은 논리이나 경험이나의 대조적인 사유의 두 축을 이루며, 서양 음악 이론의 맥을 형성하였다. 이 두 전통에 ㉦ 배어 있는 대립적 성향은 비단 이론 뿐 아니라, 창작·연주·감상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 비유적 진술을 통해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다) : 관점의 차이를 부각하며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 앞 단락의 내용과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여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마) :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6. <보기>를 읽고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의 음악 이론가인 보이티우스는 음악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가장 높은 단계의 ㉠ **뮤지카 문다나**는 천체나 지구가 만들어 내는 음악으로 대우주의 수(數)적 조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인 ㉡ **뮤지카 휴마나**는 우주 질서의 영향을 받는 육체와 영혼 및 그들의 조화를 일컫는 말이다. 이 두 단계의 음악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정신적 상태를 뜻한다면, 세 번째 단계인 ㉢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는 인간의 목소리를 포함한 악기들의 물리적인 소리들이 음향학적 원칙들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 ① ㉠의 생각은 ㉡로 전승되었군.
- ② ㉢의 행위에 의해 ㉣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이 구현되는 것은 ㉡의 차원이겠군.
- ④ ㉤이 음향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의 차원이겠군.
- ⑤ ㉤을 구현하면 ㉣가 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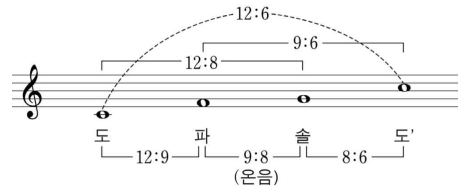
7. [음악주의자]의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첼리스트 카잘스는 연주 전, 악곡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음악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였다.
- ② 음악 애호가 영수는 음악을 감상할 때 음악 요소들 간의 수리적 관계를 탐구하였다.
- ③ 성악가 수희는 독창회 준비 과정에서 음반을 들으며 악곡의 분위기를 익혔다.
- ④ 음악 이론가 베벳은 베베른의 음악에서 대칭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 ⑤ 작곡가 노노는 악곡 설계 과정에서 피보나치수열을 적용하였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첼로를 전공하는 윤지는 음향학 시간에 배운 음정의 원리를 C현에 적용하고 있다. 윤지는 도가 소리 나는 이 C현을 12등분하여, 확장된 비례식 12:9:8:6을 가지고 옥타브 안에 존재하는 5도, 4도, 온음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① [도 - 솔]과 [파 - 도']의 음정은 같겠군.
- ② 옥타브는 5도와 4도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③ 옥타브는 두 개의 4도와 한 개의 온음으로 구성되었군.
- ④ 현 길이의 비가 12:8인 두 현을 켜면 4도가 소리 나겠군.
- ⑤ 현 길이의 비 9:8은 5도와 4도의 차이인 온음에 해당하겠군.

9. ㉡와 ㉢를 공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겹쳐 있는 ② 들어 있는 ③ 쏠려 있는
- ④ 안겨 있는 ⑤ 없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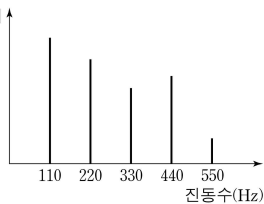
<3>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28-33번

[10~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악기가 ㉠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시끄러운



<그림>

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이다. 그러므로 장3도를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A]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가령, 음정이 2/1인 옥타브, 3/2인 완전5도, 5/4인

장3도, 6/5인 단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썬여림, 음색 등이 있다.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썬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예컨대 조성 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썬표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의 음계 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조성 음악 : 으뜸음 ‘도’가 다른 모든 음계 음들을 지배하는 음악으로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양 음악이 이에 해당한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 ④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 ⑤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11.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질서를 가진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②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③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④ 셈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⑤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12. 음악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 중, ㉠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①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운음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13. 윗글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은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
- ②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 Hz로 인식된다.
- ③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 ④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⑤ <그림>에서 220 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14.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발생하는 네 음 P, Q, R, S의 기본음의 진동수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

음	P	Q	R	S
기본음의 진동수(Hz)	440	550	660	880

-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3도이다.
-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 기>—

윗글의 ㉠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되라.
-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4>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42-45번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18세기의 바로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악보에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음높이를 나타내는 5선과 음자리표, 음길이를 나타내는 음표와 박자표이다. 음높이와 음길이는 음악이 표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선은 음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9세기경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낮이는 재현할 수 없었다. 이후 11세기경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 현재 사용하는 5선 악보는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또한 11세기경부터 사용된 음자리표는 고정된 음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해, 음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는 13세기 말 ‘프랑코 기보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보법에서는 네 종류의 음길이를 ㉠ 정하고, 이를 가장 긴 두플렉스롱가부터 가장 짧은 세미브레비스까지 네 가지의 음표로 표기했다.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 특히 다성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선율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구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음길이의 음표는 이를 표시하는 데 유용했다.

이름	두플렉스롱가	롱가	브레비스	세미브레비스
음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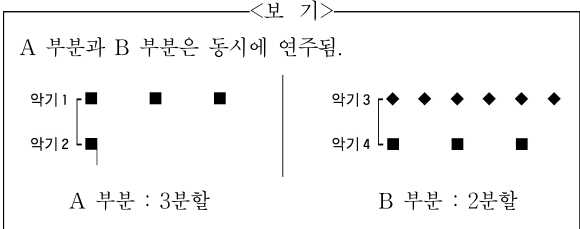
음길이의 표현인 리듬이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며, 이를 표기한 것이 박자표이다. 음악의 흐름에는 강과 약의 박이 있다. ‘강-약’, ‘강-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이것을 묶은 것이 각각 2박자, 3박자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 주는 14세기에 시작되었다.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수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하였는데, 14세기가 되면서 불완전 분할인 2분할도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 3분할과 2분할은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음높이는 5선과 음자리표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음길이는 음표와 박자표로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을 보여 주면서, 소리는 악보를 통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16.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다양한 리듬의 표현은 규칙적인 박을 표기한 후에 가능했다.
 - ② 14세기의 악보에서는 음높이와 음길이의 표시가 가능했다.
 - ③ 음자리표와 박자표는 모두 리듬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 ④ 9세기에는 가사에 맞는 상대적인 음길이를 표시했다.
 - ⑤ 2선과 4선 악보에서는 음자리표를 볼 수 없다.

17. 윗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대조하여 진술한다.
 - ②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③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 ④ 권위 있는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 ⑤ 대상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18. <보기>는 ‘프랑코 기보법’을 활용하여 ㉠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높이보다는 음길이에 관한 표현이군.
- ② A 부분은 완전 분할된 리듬을 보여 주는군.
- ③ A와 B 부분에서 악기 3의 리듬이 가장 빠르겠군.
- ④ A는 ‘강-약’으로, B는 ‘강-약-약’으로 연주될 수 있겠군.
- ⑤ A의 롱가 1개는 B의 세미브레비스 6개와 연주 시간이 같겠군.

19.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개정(改定)하고
 - ② 판정(判定)하고
 - ③ 인정(認定)하고
 - ④ 추정(推定)하고
 - ⑤ 설정(設定)하고

<6> 2011학년도 법학적성능력시험 언어이해 21-23번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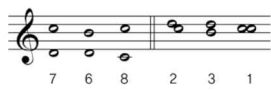
음악에서 개별적인 음 하나하나의 단순한 소리일 뿐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음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음들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맥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음정과 화음, 선율과 화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떨어진 두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한다. 음정의 크기(1도~8도)와 성질(완전, 장, 단 등)은 두 음의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그에 따라 음정은 세 가지, 곧 완전음정(1도, 8도, 5도, 4도), 불완전음정(장3도, 단3도, 장6도, 단6도), 불협화음정(장2도, 단2도, 장7도, 단7도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한 음의 중복'인 완전1도가 가장 협화적이며, 완전4도 <도-파>는 완전5도 <도-솔>보다 덜 협화적이다. 불완전음정은 협화음정이라는 하나 완전음정보다는 덜 협화적이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직적인 음향보다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선법 음악이 발달했다. 선법 음악은 음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위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선율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했으며, 그에 반해 그 선율들이 만들어 내는 수직적인 음향은 부차적이었다.

중세의 선법 음악에서는 완전하게 어울리는 음정을 즐겨 사용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음정만을 협화음정으로 강조하면서 불완전음정과 불협화음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불완전음정인 3도와 6도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6세기 대위법의 음정 규칙에서는 악보(가)의 예가 보여 주듯이 음정의 성질에 따라 그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7도의 불협화적인 음향이 '매우' 협화적인 음향인 8도로 진행하기 전에 '적당히' 협화적인 음향인 6도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선법 음악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음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도-3도-1도의 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나)



한편 불완전음정 3도가 완전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되면서 '화음'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이다. 예컨대 <도-미-솔>을 음정의 개념에서 보면 <도-솔>, <도-미>, <미-솔>로 두

음씩 묶은 음정들이 결합된 소리로 판단되지만, 화음의 개념에서는 이 세 음을 묶어 하나의 단위, 곧 3화음으로 본다. 이와 같이 세 음의 구성을 한 단위로 취급하는 3화음에서는 맨 아래 음이 화음의 근음(根音)으로서 중요하며, 그 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 또한 이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 장3도인지 단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3화음, 단3화음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면 완전5도 <도-솔>에 장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 장3화음'이며, 단3도 <도-미 b>을 더한 <도-미 b-솔>은 '도 단3화음'이다. 화성적 음향이 발달해 3화음 위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위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조성 음악은 이러한 화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한 것이다.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는 양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평적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조성 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 한다. 말하자면 화성은 화음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만들어 내는 맥락을 뜻한다. 악보(나)가 보여 주듯이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완전음정 <도-솔>은 완전음정 <도-도>보다 덜 협화적이다.
- ② 르네상스 시대보다 중세 시대에 협화적인 음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 ③ 2도-3도-1도의 진행은 불협화음정-불완전음정-완전음정의 단계적 진행이다.
- ④ 장3화음과 단3화음은 근음 위에 쌓은 3도 음정의 성질에 따라 구별된다.
- ⑤ 화음의 개념에 근거한 선율만으로는 곡의 주요 3화음을 알 수 없다.

25. 선법 음악에서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음의 재료가 협화적 음정에서 불협화적 음정으로 바뀌었다.
- ② 대위적 양식에서 추구하던 선율들의 개별적인 독립성이 쇠퇴하였다.
- ③ 수직적인 음향을 강조하던 것이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④ 화성적 맥락으로 전환되면서 3도 관계의 화음들이 근본적인 화성 진행을 만들었다.
- ⑤ “화성은 선율의 결과이다.”라는 사고가 발달하면서 선율과 화성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26. <조건>에 따라 <보기>의 곡을 작곡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조 건>
- 선율은 ‘도’를 으뜸음으로 한다.
 - 한 마디에는 하나의 화음을 사용한다.

<보 기>

- ① ①의 화음에는 ‘미’가 내재되어 있다.
- ② ②에는 버금떨림 7화음이 사용되었다.
- ③ ③에는 딸림 7화음이 사용되었다.
- ④ 으뜸화음에서 시작하여 으뜸화음으로 끝난다.
- ⑤ 각 마디의 첫 음은 그 마디에 사용된 화음의 근음이다.

<7>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6~19번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회화나 조각과 같은 공간 예술과는 달리,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작곡가들은 그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다. 즉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반복의 양상과 효과는 <비행기>와 같은 동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노래를 하나로 묶어 주고 있다.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방’을 선택했다. 이때 ㉠ 모방은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된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 간다. 이로써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성부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을 느끼게 해 주는 짜임새가 만들어졌다.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 성악 음악을 구현하는 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이제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음 성부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가 나타난다. 이로써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고전 시대에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이 시대에 널리 쓰인 소나타는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는데,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악장의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는 론도 형식이 적합하다.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각 시대의 작곡가는 입체적인 모방, 장식적인 변주, 형식적인 반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구현된 악곡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음악은 시대마다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반복은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 ② 선율의 반복은 노래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 ③ 돌림 노래는 무반주 성악곡에서 변주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 ④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화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 ⑤ 반복 기법은 단순한 노래부터 복잡한 악곡까지 널리 사용된다.

28. ㉠의 방법에 따라 <보기>를 사용하여 3성부의 악곡을 만들 때, 도입부의 짜임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① 성부1 [A | B]
성부2 [| | A | D]
성부3 [| | A | C]
- ② 성부1 [A | B]
성부2 [A | C]
성부3 [A | D]
- ③ 성부1 [A | B]
성부2 [C | D]
성부3 [B | A]
- ④ 성부1 [| | C | D]
성부2 [| | D | A]
성부3 [A | B]
- ⑤ 성부1 [| | C | D]
성부2 [A | B]
성부3 [B | C]

29.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美)를 보여 준다. 1:1.618의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도 아름다운데, 이 비율로 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면 통일과 변화라는 또 다른 미감이 생긴다. 이런 반복과 변화의 미는, 르네상스의 건축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건축물에서 문과 창이 같은 형태에서는 반복의 미를, 다른 크기에서는 색다른 변화의 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이런 건축물을 세련되게 작곡된 음악에 비유해 '조화'라 불렀다.

- ① 반복의 미적 쾌감은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양식이나 자연물에서도 느낄 수 있겠군.
- ②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③ 장식적 변주는, 크기를 달리하며 변화되는 문과 창에서 느껴지는 색다른 미감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④ 바로크 성악 음악에서 화성 반주의 저음 성부는 앵무조개 껍데기 무늬에서 느껴지는 미와 통하겠군.
- ⑤ '조화'라 불리는 건축물에서 통일성과 변화가 공존하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군.

30. ㉠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중 ㉠의 효과와 유사한 것은?

- ①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걸음 치마폭이 너풀거린다.
- ②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대강 급한 일부터 끝내자.
- ③ 가뭄으로 논밭이 바싹바싹 타들어 간다.
- ④ 노랫소리가 멀리멀리 울려 퍼진다.
- ⑤ 공간을 꼭식으로 가득가득 채웠다.

<8>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43-46번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이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 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 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3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예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으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바로크 시대의 기악은 악기가 발달하고 다양한 장르가 형성되면서 발전하였다.
 - ② 정서론과 음형론은 성악을 배경으로 출현하였으나 점차 기악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 ③ 부어마이스터는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음형론의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 주었다.
 - ④ 마테존은 아리아를 분석하면서 가사의 의미와 악곡의 전개 방식들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⑤ 한슬리크는 음들의 결합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형식적 원리를 강조하였다.

3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래는 은비가 습작한 바로크 양식 성악곡의 일부분이다.

㉠ 라단조

㉡ 스타카토

㉢ 올라가는 가락

대 지를 적시는 눈 물 열리는 신 의 하늘 모 두가

㉣ 온힘표

㉤ 다장조로 조바꿈

아-무말-없네 내 맘에 환 희 념 지네

- ① ㉠ : 경건하고 웅장한 분위기 설정을 위한 것이겠군.
- ② ㉡ : 푹푹 떨어지는 '눈물'을 묘사한 것이겠군.
- ③ ㉢ : '하늘'이 높다는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이겠군.
- ④ ㉣ : 말의 장단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 ⑤ ㉤ : 기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군.

34. ㉠과 관련하여 <보기>의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야금을 (A) 시작하자, 그는 체로 장구를 (B) 시작했다.

- | | |
|---|---|
| <p><u>A</u> <u>B</u></p> <p>① 뜯기 치기</p> <p>③ 타기 통기</p> <p>⑤ 통기 타기</p> | <p><u>A</u> <u>B</u></p> <p>② 치기 켜기</p> <p>④ 켜기 두드리기</p> |
|---|---|

<9> 2015년 3월 고2 학력평가 국어영역 24-27번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에서는 음악이 구체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음악수사학이 태동하였다. 음악수사학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사를 위주로 작곡을 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지만, 마테존에 와서는 가사 없이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음악수사학을 체계화한 마테존은 청중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음형*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나) 마테존은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누었다. 선율 음형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이다. 그리고 장식 음형은 악곡을 실제 연주할 때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음형이다. 마테존은 같은 내용이라도 웅변가가 상황에 따라 웅변술을 달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주자도 실제 연주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 선율 음형에는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인 ‘아나포라’, 문장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인 ‘영탄법’, ‘멈춤’ 등이 있다. 아나포라는 수사학에서의 두음(頭音) 반복의 원리를 음악에 적용하여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는 음형이다. 작곡가는 전달하려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음형을 ㉠ 쓴다. 영탄법은 느낌표로 표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음 사이의 도약을 통해 감탄을 표현한다. 멈춤은 음을 짧게 끊어 갑작스럽게 단절된 느낌을 주는 음형으로, 영탄법과 함께 격한 감정을 표현한다.

(라) 장식 음형은 연주자가 실제 연주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다른 음을 넣어서 연주하면서 구현되는 것이다. 장식 음형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악센트’,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전환하는 ‘트릴’, 한 음이나 여러 개의 음을 빨리 되풀이하여 연주하는 ‘트레몰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마테존은 감정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악센트를 중시하였다.

(마) 음악수사학에서는 특정한 음형을 사용하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마테존이 체계화한 음형은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말부터 음악수사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만, 음악수사학자들이 체계화한 음형은 오늘날까지 음악에 대한 상식으로 남아 있다.

* 음형 : 연속한 몇 개의 음이 특정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양.

3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음악수사학의 태동 배경을 제시하였다.
- ② (나)에서는 음형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③ (다)와 (라)에서는 (나)의 내용을 상세화하였다.
- ④ (라)에서는 비유를 통해 장식 음형을 설명하였다.
- ⑤ (마)에서는 음악수사학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36.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마테존은 장식 음형보다는 선율 음형을 중시하였다.
- ② 바로크 시대에는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③ 마테존은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마테존은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⑤ 음악수사학에서는 음형을 통해 감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37. <보기>는 음형을 활용하여 습작한 악보와 연주자의 메모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① ㉠에는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여 감정을 강조하려는 작곡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
- ② ㉡에서 음이 도약하는 것을 보니 가사를 붙인다면 감탄을 드러내는 표현이 적절하겠군.
- ③ ㉢는 연주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장식 음형의 일종인 트레몰로를 사용한 것이군.
- ④ ㉠은 단어 차원, ㉡는 문장 차원에 근거한 음형이군.
- ⑤ ㉠은 작곡 과정에서 고안되는 반면에 ㉢는 실제 연주에서 구현되었어.

38.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요즘 신경 쓸 일이 많다.
- ② 그 공식을 쓰니 문제가 풀렸다.
- ③ 악기를 사는 데 많은 돈을 썼다.
- ④ 억지를 쓰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 ⑤ 공사를 하게 되어 인부를 써야 한다.

<10> 2013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 언어영역 30-33번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기 서양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음악 양식은 성가(聖歌)이다. 성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레고리오 성가로, 초기에는 성부(聲部)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단선율 음악이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식상하게 느껴졌던 단선율 음악이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복선율로 바뀌는 혁명적 사건이 9세기 중엽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위법의 시초가 되었다. 대위법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노래되어도 소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위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현되었을까?

대위법이 적용된 최초의 형태는 9세기 중엽에 발생한 평행 오르가눔이다. 동일한 선율이 완전 5도라는 음정의 간격을 ㉠ 두 고 두 사람에게 의해서 동시에 불리면, 두 선율은 협화음을 이루게 되어 서로 어울리는 음이 된다. 이때, 성가의 중심이 되는 주 선율인 기존 선율은 상성부에 놓이고 이에 대응하는 부선율인 대위 선율은 완전 5도 아래 즉, 기존 선율의 하성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선율이 특정 음정 관계를 평행으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도록 한 것이 최초의 대위법이며, 이 평행 선율이 바로 평행 오르가눔이다. 이 평행 선율의 탄생은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후 대위법이 점차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11세기에는 자유 오르가눔이 등장했다. 자유 오르가눔은 평행 오르가눔과 달리 기존 선율은 하성부에, 대위 선율은 상성부에 놓인다. 그리고 대위 선율은 기존 선율이 움직이는 방향과는 상관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는다. 자유 오르가눔은 대위 선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되, 기존 선율과의 음정 관계가 협화음을 유지하는 대위법이 적용되었다. 당시에는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의 음정이 협화음이었고, 두 선율 사이의 음정이 협화음이면 두 선율은 어울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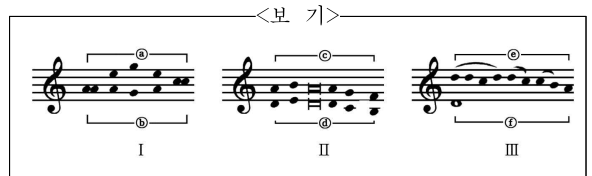
[A] 12세기에는 화려한 오르가눔이 탄생했다. 이전까지의 오르가눔에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 역시 하나의 음만 사용되었으나, 화려한 오르가눔의 경우에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은 음군(音群)이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기존 선율과 대위 선율의 비율이 1:1이 아니라 1:다(多)가 된 것으로, 이전 시대의 오르가눔보다 대위 선율이 더 화려해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선율에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기존 선율의 각 음이 대위 선율에서 사용되는 음의 수에 따라 소리를 길게 내면서 기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즉 대위 선율에 세 개의 음이 사용될 때에는 3박자를, 네 개의 음이 사용될 때에는 4박자를 기다려 주는 것이다. 이것은 대위 선율이 기존 선율에 의존했던 이전의 오르가눔과는 달리,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에 따라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화려한 오르가눔에서는 기존 선율보다 대위 선율이 성가의 미적 감흥을 주는 중심 요소로 인식되었다.

12세기 말에 이르러 화려한 오르가눔은 또 다른 형태의 오르가눔으로 이어졌고, 이와 함께 대위법 또한 점점 고도로 발달하게 된다. 대위법은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단성(單聲) 음악을 다성(多聲) 음악으로 발달시킨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9.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오르가눔의 탄생 배경 ② 오르가눔의 전수 방법
- ③ 오르가눔의 발달 과정 ④ 오르가눔의 화음 구성
- ⑤ 오르가눔의 선율 배치 방식

40. <보기>는 윗글에서 언급한 각 오르가눔의 악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I에서 ㉠은 ㉡를 기준으로 협화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 ② II는 ㉢와 ㉣가 완전 5도의 음정 간격을 두고 진행되는 복선율이다.
- ③ III에서 ㉤는 ㉥의 음의 수에 따라 소리를 길게 내면서 연주해야 한다.
- ④ II와 III에서 ㉦와 ㉧는 기존 선율에 대응하는 대위 선율이다.
- ⑤ 대위법은 II→I→III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변천되었다.

41. [A]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선율이 기존 선율에서 대위 선율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기존 선율에 대한 대위 선율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만큼 음의 활용 기법에 있어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대위 선율보다 기존 선율에서 박자의 화려한 변주가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대위 선율과 기존 선율의 성부 위치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42. ‘두다’의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일이 많아서 비서를 **두었다**.
- ② 내 동생은 바둑보다 장기를 잘 **둔다**.
- ③ 교수님은 사관학교 출신을 사위로 **두었다**.
- ④ 나는 마음에 **두었던** 그녀를 드디어 만났다.
- ⑤ 나는 그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걸었다.

<1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28-30번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 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빈의 ㉠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의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읽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4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 주었다.
-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44. ㉠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45. <보기>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 ① 슐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겠군.
- ③ 음악을 ‘읽는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 ④ 스탕달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르므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을 뛰어넘은 것이겠군.
-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때문이었겠군.

<12> 2015년 고2 9월 학력평가 국어영역 24-26번

[46~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연성 음악(Aleatoric)’이란 주사위를 뜻하는 라틴어 ‘알레아(Alea)’에서 유래된 용어로, 서양음악의 전통적 통념에서 벗어나 작곡이나 연주 과정에 우연성을 도입함으로써 불확정성을 추구하는 음악을 일컫는다. 우연성 음악은 현대음악이 지나치게 추상화되거나 정밀하게 구성된 음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는데, 대표적인 음악가로 케이지와 슈톡하우젠이 있다.

케이지는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무작위(無作爲)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주장하는 동양의 주역 사상을 접한 후, 작곡에 있어 인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케이지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우연의 요소를 도입하여, 음의 높이나 강약 또는 악기나 음악 형식을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연적 방법을 사용한 케이지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1951년 작곡된 <피아노를 위한 변화의 음악>이 있다. 케이지는 이 곡을 작곡할 때 작품 전체의 형식 구조만을 정해 놓고 세 개의 동전을 던져 음의 고저와 장단, 음가 등을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곡의 전체 구조는 합리적 사고에 의해, 세부적인 요소는 비합리적인 우연성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케이지의 영향을 받은 슈톡하우젠은 음악의 우연성이 통계적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음악적 요소들의 관계에서 가변성이 형성될 때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음악처럼 고정된 악보를 제시하여 정해진 연주 방법과 진행 순서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여러 악구만 제시하고 연주자가 이를 임의로 조합하는 우연성에 의해 연주해도 얼마든지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슈톡하우젠의 <피아노 소품 XI>은 19개의 단편적인 악구로만 구성된, 단 한 페이지의 악보로 된 작품이다. 각 악구의 끝에는 박자, 빠르기, 음의 세기 등과 같은 지시어가 적혀 있는데, 연주자는 악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생각한 박자, 빠르기, 음의 세기로 연주를 시작하고, 해당 악구의 연주가 끝나면 임의로 선택한 다른 악구로 이동한다. 이때 각 악구의 뒷부분에 다음 악구를 연주하는 방식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 그 다음 악구는 바로 직전 악구의 지시어대로 연주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악구를 두 번째로 다시 연주할 때에는 해당 악구 앞부분의 괄호 안에 적힌 옥타브 변경 지시에 따라 연주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어느 한 악구를 세 번째로 연주하게 되면 끝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처음에 선택한 악구를 연달아 세 번 연주하고 끝내는 짧은 연주 방법부터, 모든 악구를 두 번씩 반복한 후 마지막에 임의의 한 악구를 선택하여 끝내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우연성 음악**은 하나의 작품이 작곡되고 연주되는 과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창작 과정과 이를 실현하는 연주자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때문에 음악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6. **우연성 음악**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곡가와 연주자의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연주자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 ③ 누구나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
- ④ 음악의 창작과 실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불확정성이 음악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⑤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곡과 연주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7. ‘케이지’가 ㉠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기 위해
- ② 작품 전체 형식 구조의 합리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 ③ 작품의 음악적 요소들을 동일한 횟수로 반복하기 위해
- ④ 작품의 의미가 주역 사상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⑤ 작품 진행 과정에서 작곡가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4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첫 악구 연주 방법 : B를 선택, 2/4박자, 보통 빠르기
- 연주 순서 : B → A → E → C → B → A → C → D → A

A	
	(한 옥타브 낮게) 4/4박자, 느리게
B	
	(한 옥타브 높게) 2/4박자, 매우 빠르게
C	
	(한 옥타브 높게) 2/4박자, 모든 박 악센트
D	
	(두 옥타브 낮게) 2/4박자, 아주 느리게
E	
	(한 옥타브 낮게) 3/4박자, 보통 빠르기

- ① 악구 A는 모두 2/4박자로 연주되는군.
- ② 악구 B와 D는 모든 박을 악센트로 연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군.
- ③ 악구 C는 처음에는 ‘보통 빠르기’로, 두 번째는 ‘느리게’로 연주되는군.
- ④ 악구 D 다음에 A가 아닌 C를 선택해도 연주는 끝나겠군.
- ⑤ 악구 E는 원래의 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으로 연주되는군.

<13> 2016년 10월 고3 학력평가 국어영역 24-27번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흔히 건반 악기라고 부르는 피아노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반으로 연주하는 현악기이다.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으로 생성된 음이 음향판에서 증폭되어 특유의 음색을 가진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기준으로 피아노에서 특유의 소리가 나기까지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피아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액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건반마다 하나씩 있는 액션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우선 액션은 건반을 누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액션에 있는 해머가 현을 때리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둘째, 건반을 누를 때에는 해당 현의 댐퍼가 현에서 떨어지게 했다가 손을 건반에서 떼 때 댐퍼가 현에 다시 붙게 한다.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머에 의해 진동을 시작한 현이 계속 진동할 수 있게 하고, 그 건반에서 손을 떼면 댐퍼가 다시 현에 붙도록 하여 다른 현이 진동할 때 공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해머가 현을 때리는 즉시 액션은 해머를 현에서 이탈하게 한다. 액션이 이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만약 해머가 현을 때리고 곧바로 떨어지지 않거나, 해머가 현을 때린 후 그 반동으로 인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해머의 방해요 현이 자유롭게 진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반 하나에 액션은 하나가 대응하지만 현은 그렇지 않다. 건반 하나에 같은 음높이로 조율된 여러 개의 현들이 대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저음부에는 해머 하나에 같은 음높이의 현이 1~2개씩 대응되어 있고, 중고음부에는 2~3개씩 대응되어 있어 해머가 한번에 여러 개의 현을 때릴 수 있다. 그에 따라 같은 음높이를 가진 현이 여러 개 진동하므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은 현과 음향판을 잇는 역할을 하는 브리지를 거쳐 음향판으로 전달된다. 음향판은 현의 진동을 전달 받아 공기와의 접촉면을 넓혀 음량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음향판에는 항봉이 부착되어 있어 음이 음향판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음향판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피아노의 페달 역시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 특정 역할을 수행하여 음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피아노의 세 페달 중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댐퍼 페달’이라고 한다. 이 페달을 밟으면 모든 현에서 댐퍼가 일제히 떨어지게 된다. 만약 댐퍼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른다면 현의 진동은 건반을 누르지 않은 다른 현에도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건반에서 손을 떼도 이 같은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댐퍼 페달은 연주된 음을 지속적으로 울리게 하여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효과를 낸다. 왼쪽 페달은 ‘소프트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 페달을 밟으면 해머가 한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해당 건반의 해머가 때리는 현의 수를 3현은 2현으로, 2현은 1현으로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음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운데 페달은 ①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를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댐퍼만이 현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음색에 변화를 줄 수 있다.

4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아노의 종류와 그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피아노의 주요 장치와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피아노의 제작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피아노의 작동 원리를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 ⑤ 피아노의 연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부각하고 있다.

5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향판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군.
- ② 건반 개수는 액션 개수와는 같지만, 현의 개수보다는 적겠군.
- ③ 건반을 세게 내려치면 액션은 그 힘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겠군.
- ④ 건반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해머가 현을 때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⑤ 해머가 현을 때린 후 곧바로 현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연주자가 의도한 대로 현이 울리지 않을 수 있겠군.

51. ㉠을 밟았을 때의 효과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 ① 건반에서 손을 떼도 해당 건반 음이 지속된다.
- ② 건반에서 손을 떼도 해당 건반 음 외의 다른 음이 공명한다.
- ③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아도 해당 건반 음을 멈춘다.
- ④ 건반을 누를 때 해당 건반 음의 음량을 감소시킨다.
- ⑤ 건반을 누를 때 해당 건반 음 외의 다른 음이 공명한다.

5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단, ㉠을 연주할 때부터 댐퍼 페달을 밟았다가, ㉡를 연주하기 직전에 댐퍼 페달에서 밟을 댐다.

- ① ㉠을 연주할 때, 건반을 손에서 떼 후에도 현은 계속 진동하게 되므로 ㉡의 연주 음과 부드럽게 연결된다.
- ② ㉠을 연주할 때,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현만 댐퍼에 붙지 않으므로 댐퍼 페달을 밟지 않을 때보다 음량이 커진다.
- ③ ㉠을 연주할 때, 건반을 매우 강하게 누른다고 해도 ㉡에서는 어떠한 현도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 ④ ㉡를 연주할 때에는 ㉠, ㉡와 달리 건반을 손에서 떼 후에는 해당 건반의 현 외에는 울리지 않게 된다.
- ⑤ ㉡를 연주할 때, 건반들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건반들의 댐퍼는 현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해당 음들이 서로 공명을 일으킨다.

<14>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47-50번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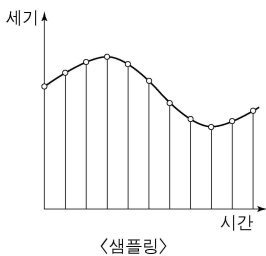
디지털 ㉠ 피아노는 ㉡ 건반의 움직임에 따라 내장 컴퓨터가 해당 건반의 소리를 재생하는 ㉢ 악기이다. 각 건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내장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

건반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 각 센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하는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을 감지하고, 나머지 둘은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첫 센서에 의해 건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내장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CPU)가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건반을 누르는 세기에 따라 음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두 센서를 이용한다. 강하게 누르면 건반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져 두 번째와 세 번째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 간격이 줄어든다. CPU는 두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음의 크기가 커지도록 소리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가 끝난 소리 데이터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변환 장치(DAC)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고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 피아노 소리로 재현된다.

그렇다면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각 건반의 소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로 바뀐 것일까? ㉣ 각 건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녹음된다.

샘플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샘플을 얻는 것이다.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진다. 하지만 각 주기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에 샘플링 주기가 짧아지면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데이터도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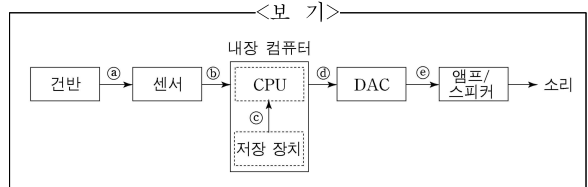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이다. 양자화 표는 일반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변화 폭을 일정한 수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 이진수로 표현되는 부호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할당된 표이다.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부호에 사용되는 이진수의 자릿수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하나의 부호를 3자리의 이진수로 나타낸다면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000~111까지의 부호가 할당된 8개가 된다. 즉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 8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자릿수가 늘어나면 양자화 구간의 간격이 좁아져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 데이터의 양은 커진다. 이렇게 건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통해 변환된 부호의 형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된다.

53.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로 미리 녹음되어 저장된다.
- ② 각 건반에는 같은 수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 ③ 건반의 눌림 동작과 세기는 동시에 감지된다.
- ④ 소리 파동 모양의 정보는 샘플링을 통해 얻는다.
- ⑤ 양자화 구간마다 할당된 부호는 서로 다르다.

54. <보기>는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건반의 눌림과 움직이는 속도
- ② ㉡ :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
- ③ ㉢ : 해당 건반의 소리 데이터
- ④ ㉣ : 처리된 소리 데이터
- ⑤ ㉤ :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

5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리 파동의 모양은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결정한다.
- ② 부호의 자릿수는 소리 표현의 세밀한 정도를 결정한다.
- ③ 부호의 자릿수는 양자화 구간의 개수를 결정한다.
- ④ 샘플의 측정값은 양자화를 통해 부호로 바뀐다.
- ⑤ 샘플링 주기는 재생되는 음질에 영향을 준다.

56. ㉡와 ㉢의 의미 관계를 A, ㉡와 ㉣의 의미 관계를 B라고 할 때, A와 B의 예로 옳은 것은?

- | | A | B |
|---|---------|---------|
| ① | 동물: 개 | 나라: 국민 |
| ② | 비행기: 날개 | 복숭아: 과일 |
| ③ | 버스: 택시 | 구두: 신발 |
| ④ | 고양이: 꼬리 | 사람: 인간 |
| ⑤ | 아들: 딸 | 옷장: 가구 |

<15> 2011년 고2 6월 학력평가 언어영역 17-20번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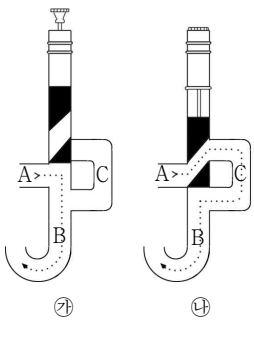
연주 중에 오케스트라 뒤쪽에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커다란 악기가 강하고 화려한 소리를 내면 관중들의 시선이 일순간 그곳으로 쏠린다. 독주보다는 주로 든든한 화음으로 음악을 받쳐주는 이 악기들은 트럼펫, ㉠ 트롬본, 호른 등으로, 서양음악에서 금관악기로 분류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놋쇠나 그 합금을 재료로 하는데, 그 특징은 ㉡ 클라리넷, 오보에, 플루트와 같은 목관악기와는 비교를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관악기는 나무로 만들어지는 악기 - 플루트의 경우 재질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나 초기에는 나무로 제작됨 - 인 만큼 관에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막는 것으로 음높이를 조절하지만, 금관악기는 연주자의 입술 모양과 불어 넣는 공기의 세기로 음높이를 조절한다. 또한 목관악기는 소리를 내기 위하여 리드(reed)를 사용하지만 금관악기는 리드가 없는 대신 입술의 진동으로 소리를 낸다. 이렇듯 금관악기는 입술의 떨림이 소리의 원천인 악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금관악기에서 소리를 내기 위한 몇 가지 장치에 대해 살펴보자.

금관악기는 입술의 진동을 이용해서 악기 관내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데 이때 마우스피스(마우스피스)는 입술의 역할을 도와 관의 본체로 진동을 전해주는 기능을 한다. 마우스피스는 기본적인 구조가 컵과 취관관(吹口管)으로 연결되는 드로트(throat)로 되어 있는데, 컵의 깊이와 드로트의 직경 등에 따라 음색이 달라진다. 즉 컵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음색이 어둡고 굵고, 깊이가 얇은 경우에는 음색이 밝고 화려하여 고음을 연주하는 데 용이하다. 또한 드로트의 직경이 좁을수록 날카롭고 직경이 넓을수록 음색은 부드러워진다. 한편 마우스피스와 본관을 통해 나오는 소리를 확대하여 소리를 공명시키는 벨의 모양도 음색에 영향을 미친다.

금관악기의 기본적인 음정은 관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관의 길이가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한 무밸브 금관악기로는, 반음계는 물론 옥타브 중의 원음도 일부밖에 연주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8세기 후반 이후 여러 가지 장치가 고안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밸브이다. 밸브의 원리는 일정한 위치에서 관 속의 공기 흐름을 차단하여 관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피스톤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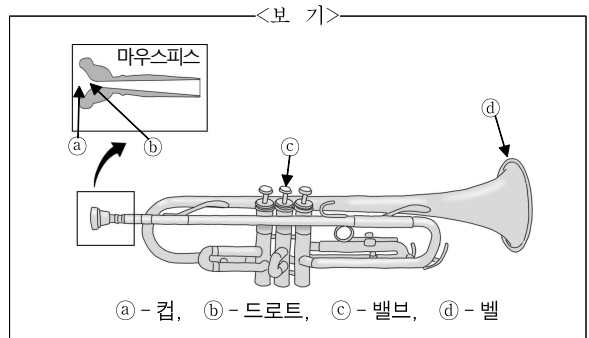
밸브를 통해 그 원리를 알아보자. <그림>의 ㉢는 피스톤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A에서 들어온 공기가 바로 B를 통과하지만, ㉣와 같이 피스톤을 누르면 공기가 C를 거쳐 B를 통과하게 되어 관의 길이가 길어져 음의 높이가 낮아진다. 밸브의 발명은 금관악기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57.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질문을 통해 중심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문제 해결 과정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쓰이는 다양한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 ⑤ 대상의 특징과 원리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8. 위글과 <보기>를 접한 학생들의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높은 음을 연주해야 할 때는 a의 깊이가 얇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네.
- ② 금관악기의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면 b의 직경을 넓게 하여 부드럽게 할 수 있겠어.
- ③ 금관악기는 c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높은 음에 취약한 악기였겠구나.
- ④ c를 누르면 무밸브 금관악기가 낼 수 없는 다양한 음을 연주할 수 있겠군.
- ⑤ 금관악기가 다양한 음색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d의 모양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

5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과 ㉡은 주로 놋쇠나 그 합금으로 만들어진다.
- ② ㉠을 연주할 때 입술은 ㉡의 리드의 역할을 한다.
- ③ ㉠은 ㉡과 달리 공기의 진동을 활용하는 악기이다.
- ④ ㉠과 ㉡을 분류하는 기준은 현재의 악기 재질과 일치한다.
- ⑤ ㉠은 입술모양으로, ㉡은 구멍을 막는 것으로 음색을 결정한다.

60. '오케스트라: 금관악기'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합창단 : 합창단원 ② 피아노 : 오르간
- ③ 교실 : 음악 수업 ④ 지휘자 : 연주자
- ⑤ 연주 : 음악회

<16>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57-60번

[61~6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불리는 가곡의 종류는 모두 41곡으로 남자가 부르는 남창(男唱)에 26곡, 여자가 부르는 여창(女唱)에 15곡이 있다. 그러나 그 레퍼토리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선율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조시(時調詩)를 ㉠ 엮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초삭대엽(初數大葉)’이라는 곡이 있다면, 그것의 선율에 ‘동창이 밝았느냐……’의 가사를 엮어 부르기도 하고, 다른 시조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가사를 엮어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 바꾸기’와 유사하다.

실제 노래를 부를 때는 맨 첫 곡인 ‘초삭대엽’부터 끝 곡인 ‘태평가’까지 한꺼번에 이어서 부르는 연창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연창의 무대를 ㉡ 접하기는 힘들고 프로그램에 가곡을 한두 곡 정도 끼워 넣어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곡의 장단에는 16박(拍)과 10박의 두 가지가 있다. 장단은 장구로 치는데, 복판을 치지 않고 주로 변죽을 쳐 다른 악기들과의 음량을 조절한다. 16박과 10박 모두 10점(點)으로 장단을 친다. 그래서 ‘10점 16박’, ‘10점 10박’ 등으로 일컫는다. 10점이 라고 하는 것은 장구에 손이 가서 소리를 내는 타점(打點)이 10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6박과 10박에는 장단의 기본 형태인 덩(㉢), 쿵(○), 덕(|), 기덕(|), 더러러(!) 등이 10번 들어 간다는 말이다.

10점 16박 장단의 보기 (1칸 20~40 빠르기)

㉢ | ! | ○ | | | | | ○ | ○ | ㉢ | ! | ○ |

10점 10박 장단의 보기 (1칸 75~80 빠르기)

㉢ | ! | ○ | | | | ○ | | ㉢ | ! | ○ |

위의 그림에서 10점 16박의 빠르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칸이 서양 음악의 빠르기를 기준해서 20~40이다. 음악의 빠르기는 특정 음표 하나를 1분에 지정하는 수만큼 연주하라는 것이다. 빠르기가 20이라면 1박은 3초가 소요되고, 30이라면 1박은 2초가 된다. 보통 빠르기가 90~110 정도인 서양 음악과 비교하면 가곡은 너무 ㉣ 느리다. 그래서 실제 가곡을 들어 보면, 그 가사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처럼 가곡의 가사를 알아듣기 어려운 데는 노래 가사에 한문구(漢文句)가 종종 등장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래 가사가 모음 변화를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아’는 ‘아으’로, ‘에’는 ‘어으이’ 등으로 발음한다. ‘청석령’이라는 노래 가사는 ‘청서——호—억러——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좇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가곡이

성행하던 시대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가곡이란 명칭도 가사를 노래한다기보다, 곡조를 노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 인내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첫 곡인 ‘초삭대엽’을 한번 끝까지 감상해 보라. 곡의 중반부를 ㉤ 지나기도 전에 시시콜콜한 일상의 잡념들은 사라지고, 해질녘의 고즈넉한 평온이 조용히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곡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 감흥에 ㉥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61.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악 속에 담긴 선인들의 여유
- ② 소재로 살펴본 시조와 가곡의 관계
- ③ 우리 가곡에 끼친 서양 음악의 영향
- ④ 장단과 가창 방식으로 본 가곡의 특징
- ⑤ 자유로운 변주가 가능한 우리 음악의 속성

62.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장단과 연주 시간을 나타 내면?

<보 기>
(1칸 60 빠르기)

㉢ | ○ | | | |

	장단	연주 시간
①	3점 3박	3초
②	3점 3박	4초
③	3점 5박	4초
④	3점 5박	5초
⑤	5점 3박	5초

63.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곡은 동일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부를 수 있는 여지가 많구나.
- ② 가곡을 한두 번 듣게 되면 가사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
- ③ 가곡은 가사가 시조시인 것으로 봐서 식자층이 많이 향유했었겠구나.
- ④ 성격이 급한 사람이 가곡을 들으려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겠구나.
- ⑤ 현대인은 가곡이 연창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겠구나.

64. ㉠~㉥를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붙여
- ② ㉡ : 만나기
- ③ ㉢ : 더디다
- ④ ㉣ : 넘어가기
- ⑤ ㉤ : 잠겨

<17> 2008년 고2 3월 학력평가 언어영역 43-46번

[65~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음의 높낮이, 길이, 세기, 빛깔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음악의 구성 요소를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악보를 기록하는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네 가지 요소 중 음의 빛깔과 ㉠ 세기는 선율의 장식적, 변화적 요인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율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음의 높낮이와 길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간보(井間譜)의 창안은 획기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세종 때 창안된 정간보는 동양에서 가장 앞선 ㉡ 유량(有量)악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한 이유는 우리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세종 이전부터 중국에서 전래된 아악을 기록하는 악보가 있었으나, 아악은 음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음 높이만 기록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향악은 음의 길이가 서로 달라 아악의 악보만으로 향악을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종은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듯이, 우리 음악인 향악을 기록하기 위하여 정간보를 만든 것이다.

정간보는 우물 정(井)자가 원고지처럼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간보에서 음의 높이는 정간(칸) 안에 문자를 써서 나타낸다. 문자는 음이름의 첫 글자를 한자(漢字)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우리 음악의 음이름은 무엇인가? 우리 음악의 음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흔히 ‘궁상각치우’라고 답한다. 그러나 궁상각치우는 중국 음악에서 쓰이는 ㉢ 계이름이다. 국악의 한 ㉣ 음역 안에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12음이 있다. 이 12음을 12율이라고 하는데, 12율에는 각각 고유한 이름, 즉 율명이 있다. 바로,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중(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중(林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중(應鐘)이다. 정간보에서 소리의 높이는 바로 12율명의 첫 글자로 표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옥타브의 변화는 어떻게 표기하는가? 정간보에서 옥타브 표시는 문자의 변(邊)에 따라 구별된다. 즉 ㉤ 기본음인 황종은 황(黃)으로 표기하고, 한 옥타브 높은 음은 삼수변(弇)을 붙여 황(潢)으로 나타내며, 두 옥타브 높은 음은 삼수변 두 개를 붙여 황(潢)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한 옥타브 낮은 음은 인변(亾)을 붙여 표기하며, 두 옥타브 낮은 음은 인변을 두 개 붙여 나타낸다. 옥타브 높은 음의 율명에 삼수변을 붙이는 것은 청성(淸聲)의 ‘淸’에서 따온 것이며, 옥타브 낮은 음에 인변을 붙이는 것은 ㉥ 배성(倍聲)의 ‘倍’에서 따온 것이다.

정간보에서 한 정간(칸)은 한 박을 나타낸다. 정간보의 한 정간이 한 박일 때, 그보다 긴 음은 정간의 수에 따라, 그보다 짧은 음은 정간 속에 쓰여진 율명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즉, 한 정간에 율명 하나가 있으면 그 음은 한 박이 되고, 한 정간에 율명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정간이 빈 칸으로 남아 있으면 그 음은 두 박이 된다. 또한 한 정간에서 율명 하나를 쓰고, 그 아랫부분에 짧은 가로선을 그어 놓은 것도 한 박이 된다. 이 선은 앞의 음이 연장된

[A] 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정간 안에 두 음이 위 아래로 적혀 있으면 한 박이 2등분 되고, 세 음이 적혀 있거나 두 음과 짧은 가로선이 있으면 3등분 된다. 정간보를 읽는 순서는 정간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줄에서 왼쪽 줄로 읽어 나간다. 다만 정간 속의 율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은 다음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65.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악과 달리 아악은 음의 길이가 같군.
- ② ‘정간보’는 향악을 기록하기 위해 만든 것이군.
- ③ ‘정간보’라는 명칭은 악보의 모양과 관련이 있군.
- ④ 선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의 길이와 높낮이로군.
- ⑤ 국악과 서양 음악은 한 음역 안에 있는 음의 개수가 다르군.

6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정간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應	大 無	黃
南	林 - 仲	
-	-	姑

- ① 仲은 1과 1/3박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黃은 두 박의 길이로 연주해야 하겠군.
- ③ 林과 大는 음의 길이가 같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應과 姑의 길이를 합하면 黃의 길이와 같겠군.
- ⑤ 黃, 姑, 大, 無, 林, 仲, 應, 南의 순서로 읽어야 하겠군.

67. ㉤의 원리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옥타브 높은 음	한 옥타브 높은 음	기본음	한 옥타브 낮은 음	두 옥타브 낮은 음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68. ㉡~㉣ 중 ‘음의 길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 세기 ② ㉢ 유량(有量)악보 ③ ㉣ 계이름
- ④ ㉤ 음역 ⑤ ㉥ 배성(倍聲)

정답

독서(비문학) 소재별 기출 모음 <음악 지문> **설문항**

영역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1>	1번	②	2%	83%	5%	6%	4%	
	2번	⑤	7%	5%	8%	20%	60%	
	3번	⑤	4%	5%	14%	9%	68%	
	4번	①	79%	5%	2%	6%	6%	
<2>	5번	③	3%	1%	88%	5%	3%	
	6번	③	2%	13%	65%	17%	3%	
	7번	③	2%	1%	94%	2%	1%	
	8번	④	9%	6%	14%	65%	6%	
	9번	②	2%	89%	1%	7%	1%	
<3>	10번	④	4%	7%	15%	71%	3%	
	11번	①	60%	14%	12%	5%	9%	
	12번	④	4%	8%	8%	75%	5%	
	13번	③	6%	16%	60%	10%	8%	
	14번	②	6%	57%	9%	16%	12%	
	15번	④	10%	7%	9%	60%	14%	
<4>	16번	②	5%	77%	5%	10%	3%	
	17번	⑤	2%	1%	2%	2%	93%	
	18번	④	2%	5%	7%	76%	10%	
	19번	⑤	4%	1%	1%	1%	93%	
<5>	20번	①	93%	2%	2%	1%	2%	
	21번	④	4%	4%	13%	76%	3%	
	22번	④	3%	8%	18%	58%	13%	
	23번	①	94%	2%	1%	2%	1%	
<6>	24번	⑤	정답률 추정결과 없음.					
	25번	②						
	26번	⑤						
<7>	27번	③	7%	6%	63%	4%	20%	
	28번	①	68%	5%	6%	8%	13%	
	29번	②	2%	64%	13%	17%	4%	
	30번	①	60%	7%	5%	11%	17%	
<8>	31번	③	3%	4%	42%	50%	1%	
	32번	④	3%	3%	7%	79%	8%	
	33번	④	4%	6%	11%	77%	2%	
	34번	①	81%	1%	4%	12%	2%	
<9>	35번	④	4%	4%	1%	89%	2%	
	36번	①	82%	4%	4%	6%	4%	
	37번	③	2%	9%	59%	25%	5%	
	38번	②	3%	84%	3%	4%	6%	

영역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10>	39번	②	정답률 추정결과 없음.				
	40번	①					
	41번	①					
	42번	⑤					
<11>	43번	⑤	5%	8%	4%	2%	81%
	44번	④	4%	12%	2%	80%	2%
	45번	①	74%	5%	6%	10%	5%
<12>	46번	④	2%	2%	9%	85%	2%
	47번	⑤	6%	3%	2%	12%	77%
	48번	⑤	8%	15%	8%	12%	57%
<13>	49번	②	4%	90%	2%	2%	2%
	50번	③	4%	4%	84%	4%	4%
	51번	①	58%	6%	14%	10%	12%
	52번	⑤	8%	7%	4%	20%	61%
<14>	53번	③	4%	4%	86%	2%	4%
	54번	②	12%	77%	5%	4%	2%
	55번	①	77%	5%	10%	5%	3%
	56번	②	3%	89%	3%	3%	2%
<15>	57번	⑤	5%	3%	3%	3%	86%
	58번	③	6%	4%	72%	4%	14%
	59번	②	6%	67%	11%	4%	12%
	60번	①	83%	6%	5%	4%	2%
<16>	61번	④	8%	2%	2%	84%	4%
	62번	④	7%	5%	20%	65%	3%
	63번	②	5%	83%	8%	2%	2%
	64번	③	26%	13%	52%	3%	6%
<17>	65번	⑤	7%	4%	7%	4%	78%
	66번	③	10%	9%	68%	7%	6%
	67번	③	7%	3%	82%	6%	2%
	68번	②	13%	66%	4%	12%	5%